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제13기 다도과정

# 한국 차 문화사

| 김상현 동국대 사학과 교수 |





# 한국 차 문화사

김상현 동국대 사학과 교수

## I 삶의 갈증과 한 잔의 차

세상이라는 바다에 언제 바람 잘 날 있으며, 욕망으로 끓주린 인생의 배 다 찰 날 있던가.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주름살 늘어만 가고, 육락은 누려 보아도 갈증만 심해질 뿐인 것을.

바쁜 날들 사노라면 한숨 돌리고 싶을 때 있고, 삶의 갈증으로 목마를 때 있다. 이럴 때 한잔 차 생각나고, 그 향기 그 맛은 진정으로 다정하다. 차는 찌들고 막힌 가슴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고, 차와 만나는 시간은 조용하게 깨어 있는 때이기에.

우리 선인들은 작설차를 즐겨 마셔왔다. 먼 삼국시대부터 선인들은 차의 맑음과 향기를 좋아했고, 잠을 쫓아 주고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효능도 알고 있었다. 그윽한 차실의 정취로 마음을 맑혔고, 다구에 대한 관심은 고려청자의 발달에 영향 주었으며, 차의 고마움을 읊은 시 또한 적지 않게 남겼다. 어떤 이는 한 잔 차로 유배생활의 불운을 달랬고, 절간의 덕 높은 스님들은 차 맛을 통해 선의 기쁨을 음미하기도 했다. 추사의 예술세계에는 차의 향기 스며 있고, 다산의 학문에는 차의 덕 배어 있으며, 초의의 선사상에는 차의 맛 묻어 있다.

옛적의 차인들은 차의 향기와 맛도 즐겼지만, 차에 내포된 상징적인 의미 되새길 줄 알았다. 정안수 한 그릇이 이미 보통 물과 다르듯,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전통의 작설차는 커피와는 사뭇 다르다. 이 때문에 차인은 차를 마시되 단 맛만을 탐하지는 않는다. 차가 가진 달고 쓰고 뚫고 시고 짠 다섯 맛을 담담히 음미하려 하는 것이다. 그 맛은 곧 인생의 여러 맛과도 통하는 것이기에, 쓴 맛 뚫은맛을 음미하면서 간간이 단맛 맛보는 재미도 있다.

차의 간이 맞아야 맛이 있듯, 인생의 간도 맞아야만 맛이 있다. 예부터 차인들은 물 끓이기 에 정성을 쏟아, 설 끓은 물은 맹탕이라고 했고, 잘 끓은 물을 경숙이라고 했다. 설익은 인생

도 멍탕이다. 삶이 바쁘면 멍탕이 되기 싫다. 한숨 돌리고, 조용히 한 잔 차 마시며, 우리들 마음의 바다에 파도 잔잔해 지기를 기다려야 하리라. 차는 혼자서 마실 때가 가장 좋다고 한다. 초의 스님은 이때야말로 신령스러운 경지에 든다고 했다. 흔히들 차 맛은 선의 맛과 같다고 한다. 선은 고요한 것이다. 고요할 때, 우리들 부질없는 생각의 바람도 자고, 그때라야 자기의 얼굴이 수면에 비치다. 마음의 바다에 물결 일면 세상은 모두 뒤집힌다. 바람, 그 허망한 바람 채우면 물결도 그치리라.

차는 잠을 쫓아주는 약이다. 카페인 성분이 강하기 때문이다. 차를 마시는 까닭은 깨어 있기 위해서다. 곤한 잠에서 깨어남은 곧 인생의 긴 꿈에서 깨어남이고, 삶의 혼미에서 밝게 눈 뜨고 각성의 생활로 향해 가는 것이다.

차는 목마름을 해소시켜 준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동의보감』에서도 지적했었다. 삶의 갈증은 심한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욕망을 다 채워 행복을 기약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한 잔 차로 갈증을 해소함이란 작은 일에도 흡족해 하는 행복 그것이다. 옛 차인들은 차를 마셔 신선 경지로 날아가기를 원했고, 달밤에 차 끓이며 세속 근심 잊기를 염원했다. 풍진세상 사는 사람들 가끔은 세속을 초월할 필요 있다. 일곱 잔 차 마셔 날개 돌아난다며 차 솥에 끓는 물소리를 슬바람 소리로 들으며 귀를 연 사람은 아름다운 이들이고, 작은 차실에서 세상 이치 눈치 채는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차의 가장 귀한 성품은 사되지 않은 것이고, 맑고 깨끗한 것이다. 세상의 혼탁함은 맑은 것으로만 씻을 수 있다. 한 잔 차로 맑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혼탁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맑은 차는 삶의 청량제로, “혼탁함을 없애기에 맑다고 하고, 뜨거운 번뇌를 식혀주기에 서늘하다고 한다.” 청량에 대한 원효의 해석이다. 현실의 삶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번뇌의 불길이 뜨거울수록 청량제 차는 향기롭다. “맑고 깨끗한 차의 정기 마실 때, 어찌 큰 도 이를 날 멀다고만 하랴.” 이는 초의스님 차시 중의 한 구절이다. 그러기에 차는 큰 길로 통한다.

바쁘고 목마른 생활, 그 생활의 와중에서, 잠시나마 한숨 돌리고, 마음의 평정 누리하고자 하는 이, 즐리는 눈을 다시 뜨고 현실의 혼미로부터 깨어나 인생의 참맛을 담담히 음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한 잔 차 있음은 다행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속에 때 묻기 두려워하고, 맑은 향기 그리워하는 진정 아름다운 이에게 차는 언제나 그윽한 벗이리라.

## II 차의 역사

차는 7세기 전반인 신라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다. 그 성행은 828년(흥덕왕 3) 대렴(大廉)이 당나라로부터 차 종자를 가져다 왕명으로 지리산에 심은 이후의 일이다. 이때부터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과 호남지방은 우리나라 차의 본고장이 되었다. 이 지방의 기후 및 입지조건이 차나무 재배에 적합한 때문이기도 하였다.

한편 가야시대에 인도로부터 차가 전래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료는

불충분하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일부 승려 및 화랑도들 중에서 차를 마셨다. 사복(蛇福)이 원효(元曉)에게 차를 공양하였다는 설화, 8세기의 보천(寶川)·효명(孝明) 두 왕자가 오대산에서 수도할 때 문수보살에게 차를 공양하였다는 기록, 경덕왕 때의 승려 충담(忠談)이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삼화령(三花嶺)의 미륵불에게 차를 공양했다는 기록, 경덕왕이 승 월명(月明)에게 차를 예물로 주었다는 기록, 진감국사(眞鑑國師)·무염국사(無染國師) 등이 차를 마셨다는 기록 등은 이 시대 승려사회에 음다(飲茶)의 풍이 있었음을 알게 하여준다. 화랑이었던 사선(四仙: 永郎·述郎·安상양·南石)들이 경포대·한송정 등지에서 차를 마실 때 사용한 석조·석정(石井)·석지(石池) 등의 유물이 조선 초기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석정은 현존하고 있다. 이 시대의 승려나 화랑도 사이에 음다의 풍이 있었던 것은, 이들이 이 시대의 선량(選良)이었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은 이들의 수행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는 음다의 풍이 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왕실·귀족·사원 등에는 차가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차는 주과(酒果)와 더불어 고려 궁중의 주요한 음식물 중의 하나였다. 궁중에서는 연등회·팔관회 등의 국가적인 대제전이나 왕자·왕비 등의 책봉의식에는 진다의식(進茶儀式)이 행하여졌다. 차가 국제외교상 중요한 예물 중의 하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송나라의 예물 중에는 용봉차(龍鳳茶)가 끼어 있었고, 고려에서는 거간에 뇌원차(腦原茶)를 보내기도 하였다. 국왕은 신하나 승려, 혹은 노인에게 차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궁중의 차에 관한 일은 다방(茶房)이라는 관부에서 맡아보았다. 귀족들 또한 차를 즐겼다. 귀족들은 송나라 상인으로부터 중국차를 구입하거나, 좋은 다구(茶具)와 정원을 꾸미기도 하였다. 당시의 귀족계층에 속하는 승려들도 차를 즐겨, 사원에 차를 진공(進供)하는 다촌(茶村)까지 생겨났다. 선가(禪家)의 다도는 취미생활에 그치지 않고 수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사원에서는 차 끓이기를 서로 겨루는 명선(茗禪)이라는 풍속이 행하여지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음다풍의 성행은 고려청자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의천(義天)·천책(天策)·충지(沖止) 등의 고승과 이인로(李仁老)·임춘(林椿)·이규보(李奎報)·홍간(洪侃)·한수(韓脩)·홍약(洪약)·이연중(李衍宗)·이색(李穡)·이제현(李齊賢)·이승인(李崇仁)·정몽주(鄭夢周)·원천석(元天石) 등의 지식인이 차를 즐겼다. 이들은 다시(茶詩)를 남겼다.

불교와 인연이 깊었던 음다의 유풍(遺風)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교와 더불어 쇠퇴하였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시대에는 차가 고려 때만큼 유행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왕실에서는 차례(茶禮)가 행하여졌고, 사원을 중심으로 다도의 전통이 이어졌다. 조선 초기에는 이행(李行)·서거정(徐居正)·김시습(金時習)·김종식(金宗直) 등에 의하여 고려의 음다 유풍이 계승되었다. 궁중에서도 외국 사신을 맞이할 때 차례가 행하여졌다. 중기까지도 차를 아는 문인들이 가끔 있었지만, 임진왜란을 전후한 16세기경에는 음다의 풍이 쇠퇴하고 차를 제대로 마시지 않은 것 같다. 명나라의 장수 양호(楊鏞)가 선조에게 “귀국에서는 왜 차를 마시지 아니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나라 습속에는 본래 차를 마시지 않는다.”고 대답할 정도였다. 조선 초기는 물론 중기 이후에도 승려들 중에는 차를 마시는 예가 있었고, 남

쪽지방의 사원에서는 적은 양이지만, 차가 법제(法製)되면서 그 명맥이 이어졌다. 이 시대 선가의 다도는 조주다풍(趙州茶風)을 계승한 것이었다. 이처럼 사원을 중심으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던 음다풍은 19세기에 이르러 다시 한번 성행하게 되었다. 대흥사의 혜장(惠藏)·초의(草衣)·범해(梵海) 등의 다승(茶僧)과 정약용(丁若鏞)·신위(申偉)·김정희(金正喜)·홍현주(洪顯周)·이상적(李尙迪) 등 차를 즐기는 문인들이 있었다. 초의는 《동다송(東茶頌)》을 짓고 차를 재배하는 등, 다도(茶道)의 이론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도를 크게 일으켰다. 다도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정약용은 강진(康津)에서 18년 동안의 유배생활 중에 차를 즐겨 〈결명소 乞茗疏〉 등의 시를 남겼고, 강진을 떠나면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다신글(茶信契)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화엄사(華嚴寺)·쌍계사(雙溪寺)·대흥사(大興寺) 등의 사원에서는 차가 생산되었지만 그 양은 적었다. 고려시대 이후로 차의 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고, 토공(土貢)을 강요한 관인들의 주구는 오히려 차의 생산을 저해하는 결과를 빚기도 하였다. 19세기말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다업진흥(茶業振興)을 건의하곤 하였다.

1883년부터 농상사(農商司)에서는 차의 재배를 관장하고, 차 재배를 위한 조사를 지시하였으며 1885년에는 청나라로부터 차나무 모종, 6,000주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인 1885년에 안종수(安宗洙)가 쓴 『농정신편(農政新編)』에는 차의 재배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한 말에는 고관들 사이에 다화회(茶話會)라는 모임이 자주 열렸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에 의하여 차의 생산과 보급, 그리고 한국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물론, 그 목적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한 방편이었다. 광주에 무등다원(無等茶園), 정읍에 소천다원(小川茶園), 보성에 보성다원(寶城茶園) 등이 조성된 것도 일본인들에 의해서였다. 1930년대부터 고등여학교와 여자전문학교에서 다도가 교육되었는데, 1940년대에는 47개 여자고등학교와 상당수의 여자전문학교에서 교습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다도교육은 일본의 다도를 우리나라에 옮기려는 식민지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후 새로이 일기 시작하였던 차에 대한 관심이 1970년대 후반부터 활기를 띠면서 발전하고 있다. 허백련(許百鍊)과 최범술(崔凡述)은 최근 우리나라의 다도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III 韓國의 茶道精神

- (1) 정신이란 마치 꽃의 향기와도 같은 것. 뿌리, 줄기, 잎 등을 떠나 향기만 존재할 수는 없듯, 차도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것도, 차실의 분위기, 도구(茶具)의 아름다움, 차의 색·향·미, 그리고 차인의 자세 등의 조화가 바탕이 되고, 여기에 상징적 의미가 덧붙여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차도의 정신은 중국·일본 등의 경우와 비교·검토함으로써 더욱 뚜렷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상식은 전제되어야 마땅하다. 문화

의 보편성을 염두에 둔다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강조하고 있는 차도정신과 한국의 그것의 크게 다를 바 없고, 반대로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할 때, 한국의 차도정신이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한국의 차도정신은, 역사적 측면, 즉 전통적인 맥락 속에서 찾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헌 자료가 극히 적음에 일차적 문제가 있다. 겨우 초의(草衣)의 동다송(東茶頌) 정도가 남아오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고려 및 조선시대에 쓰여진 차시가 적지 않게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지만, 이를 기본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많은 한시가 그렇듯이, 한국의 차시도 중국의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한 시가 사상을 담는 그릇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차도정신을 더듬어 보려할 때, 한국의 차시가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 (2) 한국의 전통 차시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것을 몇 가지로 유형화시켜 각성(覺醒):(悟), 무사(無邪):(正), 중정(中正):(和), 고아(高雅):(佳), 명선(茗禪):(寂) 등으로 표현해 본다. 이것은 폭넓은 토론을 위한 하나의 시론일 뿐이다.

차도를 통한 수행은 각성의 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차는 잠을 쫓아 준다. 이것은 차의 두드러진 한 효능으로 두루 인식되었다. 이규보(李奎報) 및 권정(權定)의 차시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잠은 혼미와 번뇌로 통한다. 「한잔 차로 두 눈이 밝아짐」(金時習)은 곧 깨어 있음이다. 차가 울적한 마음을 다스리고 막힌 가슴을 열리게 한다고 인식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초의가 말하는 진애제진정기입 대도득성하원제(塵穢除盡精氣入 大道得成何遠哉)라고 했던 대도(大道)는 곧 깨달음이기도 하다.

차의 품성은 무사(無邪)하다. 초의가 「옛 부터 현성(賢聖)이 다 함께 차를 사랑했음은, 차는 군자(君子)와도 같아 그 성이 품에 샅됨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음은 주목할 만하다. 목은(牧隱)은 「靈臺方寸地 皎皎思無邪 何暇及天下 君子當正家」라고 했다. 차의 성품이 무사하여 어떠한 욕심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때 묻지 않은 원천(源泉)과도 같은 것이기에 무착바라밀(無着波羅密)이라고 한 이는 초의다. 무사는 곧 정(正)이고 청(淸)이다. 맑은 물로 더러움을 씻을 수 있다.

초의의 차도정신이 중정(中正)에 있음은 두루 인식되고 있다. 그는 「採盡其妙 造盡其精 水得其眞 泡得其中 體與神相和 健與靈相併 至此而茶道盡」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中正, 혹은 中和는 중국의 차도정신에서 내세우는 中庸과 같고 일본에서 강조하고 있는 和와 통한다. 효당사(曉堂師)는 중정을 「간맛게」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차도는 고아(高雅)한 인품을 추구한다. 이규보는 차를 「규중의 귀한 처녀」에 비유했고, 이승인(李崇仁)은 「누가 알리, 좋은 차, 아름다운 사람(佳人)과 같음을」이라고 읊었다. 김명희(金命喜) 또한 「曾聞佳茗似佳人」이라고 했었다. 「좋은 차가 아름다운 사람과 같다」는 구절의 출전을 필자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선인들이 이 말을 즐

기셨음에 유의할 뿐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고아한 품격의 사람이다. 이 규보의 「僧格所自高唯是茗飲耳」이라는 표현은 차인이 고아한 인격을 추구하던 이라는 사실일 일깨워 준다. 다승 범해(梵海) 또한 「生涯清間 數斗茶芽……·惟茶是務 何物誘我」라고 읊었다. 「맑은 바람을 타고 티끌세상을 벗어나고자」한 표현은 적지 않다. 노동의 다가(茶歌)의 영향이겠지만,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초탈을 희구하던 도가적인 멋이다. 차는 비린내 나는 세속적인 것이 못된다. 물론 초탈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연꽃의 묘리(妙理)를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차선일미(茶禪一味)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일본 등에 두루 통하는 차도정신의 한 표현이다. 이를 명선(茗禪)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것은, 묘한 용어를 만들어 내기 위함이 아니고, 추사가 초의에게 써 주었던 유명한 작품을 생각해서다. 이규보의 「一甌卽是參禪始」, 「一甌輒一話 漸入玄玄旨」 등의 구절은 차와 선이 한 맛으로 통하는 경지를 엿보게 한다. 지눌(知訥)은 「불법은 일상생활에 있으며, 행주좌와(行住坐臥), 거기에 있으며,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거기에 있으며, 대화를 나누는 거기에 있다」고 했다. 충지(沖止)는 「배고파 밥 먹으니 밥맛 더욱 좋고, 자고 일어나 차 마시니 그 맛 더욱 좋다」고 했다. 초의는 법희선열식(法喜禪悅食)을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 (3) 중국 차도정신은 흔히 중용(中庸), 검덕(儉德), 정(精), 조(操), 계 등으로 표현되는 것 같다. 일본의 경우 천이휴(千利休)가 말한 화경청적(和敬清寂)이 강조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같은 정신은 필자가 앞에서 시론으로 살펴본 한국의 차도 정신과 크게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 이것은 문화의 보편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해할 때 별 문제 될 것이 없다. 표현을 달리해 본 것은 우리의 선인들이 즐겨 쓰던 용어와 방불하게 해 보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표현의 상이(相異)는 곧 그 내용의 다름이기도 하다는 점은 지적해 두고 싶다.

모든 문화 현상이 다 그러하듯이, 한국의 차도도 어떤 한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이나 견해에 따라 하루아침에 뿌리를 박지는 못할 것이다. 하물며 차도 정신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필자의 이 소고가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징검다리라도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시론적 고찰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IV 다산 정약용의 음다

### 1. 다산초당의 다산

茶山 丁若鏞(1762-1836), 그의 생애는 수학기, 사환기, 유배기, 귀환기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다산은 영조38년(1762), 경기도 광주군 마현(馬峴)에서 진주목사(晋州牧使) 정재원(丁載遠)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천재적인 재질을 타고 난 그는 28세에 문과(文科)에 오르 고 경기도 어사(御使), 병조참의(兵曹參議), 곡산부사(谷山府使), 승지(承旨)의 벼슬까지 지 내면서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다산은 순조 원년(1800), 소위 신유사옥(辛酉邪獄)에 관련되어 먼 남쪽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고, 18년의 긴 세월 동안 귀양살이를 했다. 그의 40—50대의 해당하는 이 시기는, 그 자신에게는 암울한 때이기도 했지만, 그의 학문적 업적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그는 강진 유배생활 18년 중, 8년은 읍내에서 나머지 10년은 다산초당(茶山草堂)에서 보냈다. 그는 처음 1801년부터 강진읍 동문 밖의 한 주막에 거처하고 있었다. 그는 그 술집에서 얻은 한 방울 사의제(四宜齋)라고 이름 했지만 이곳에서 보낸 귀양살이 첫 4년은 그야말로 고독하고 적막한 생활이었다. 처음 그 지방 사람들은 거의가 다산을 가까이 하기를 꺼리고 두려워했다. 이것은 다산이 유배를 순종하지 않고 불궐(不軌)을 도모한다는 모략이 많았던 당시에 그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산은 1808년(순조 8년) 강진읍으로부터 10여리 떨어진 다산동으로 그의 거처를 옮겼다. 사의제(四宜齋), 보은산방(寶恩山房) 등으로 몇 차례 그의 우거(寓居)를 바꾸며 전전하기 8년째 되는 해였다. 그는 다산동에서 동·서암(東西庵)을 짓고서, 고독하고 쓸쓸한 가운데서도 비교적 안정된 심경으로 저술 생활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는 이곳 다산동에 정착할 당시의 정경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무진년 봄에 다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축대를 쌓고 연못을 파기도 하고, 꽃나무를 벌여 심고, 물을 끌어다 폭포를 만들기도 했다. 동서 이암(二庵)을 마련하고 장서 천여 권을 쌓아두고 저서로써 스스로 즐겼다. 다산은 만덕사(萬德寺)의 서쪽에 위치한 곳인데 처사(處士) 윤박(尹博)의 산정(山亭)이다. 석벽(石壁)에 ‘정석(丁石)’ 두 글자를 새겼다.

지금까지도 이때 다산이 판던 연못이 있고, 뒷산 바위에는 그가 써서 새긴 ‘정석(丁石)’ 두 글자가 뚜렷이 남아 있다. 이처럼 다산은 다산동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면서 10여 년을 오롯이 저술생활로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때 그가 저술한 것은 바로 이서일표(二書一表)와 육경(六經) 사서(四書)에 관한 평의(評議) 등으로, 일찍이 정인보(鄭寅普)가 평한 대로 조선 5천 년간 들도 없는 대부의 저술을 남기었던 것이다. 다산이 10여 년을 머물며 정들었던 다산동은 거기에 차나무가 야생하고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며, 또 다산(茶山)이란 호 또한 이 다산동이라는 지명에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다산을 차와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

다산은 사실 뛰어난 차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다산은 차를 사치스럽게 즐기거나, 야단스럽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옛 차인들의 취미를 엿보고자 원했다. 스스로 차 끓이는 부역을 만들고, 한 수 시를 썼던 것도 마을사람에게 새 차 한 포를 얻고 마냥 즐거워했던 것도, 다함시첩(茶盒詩帖)이라는 시집을 남겼던 것도, 정들었던 다산을 떠날 때, 제자들과 더불어 다신계를 조직하고, 해마다 차를 보내 줄 것을 당부했던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다. 다산은 차 부역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읊기도 했다.

壘壘小茶甌 벽돌로 만든 작은 차 부엌은  
離火巽風形 이화선풍(離火巽風)의 형상인데  
茶熟山僮睡 차는 끓는데 산동은 즐고  
裊煙猶自靑 피어나는 연기 스스로 푸르다.

차물이 끓고 있는 옆에 산동(山僮)이 조는 풍경은 한가하고 조용한 정경이다. 푸른 연기가 가늘게 나부끼다가 흩어져 가는 허허로운 공간으로 이 시인의 마음 또한 가 있었으리라.

다산은 어느 봄날 햇차를 맛보고 육원중(陸原中), 윤외심(尹畏心) 등과 더불어 시를 지어 화답하며 여유를 찾기도 했다. 다음 「신다(新茶)」는 다산의 작품이다.

銷金帳外建高牙 금장(金帳)을 걷은 밖에 아기(牙旗) 높이 세우고  
蟹眼魚鱗滿眼花 해안과 어안이 눈에 가득 꽃처럼 피어오른다.  
貧士難充日中飯 가난한 선비는 점심 먹기조차 어려운데  
新泉謾煮雨前芽 맑은 샘물로 우전차를 한가로이 끓인다.  
民憂莫問群仙境 신선의 경지에서선 백성 근심 묻지 마라.  
水厄誰分謝客家 누가 사객가(謝客家)에서 수액(水厄)을 나누었나.  
自信胸中無壅滯 가슴속엔 막히고 체한 것 없다고 자신했는데  
喫添清苦更堪誇 맑은 차 마셔보니 다시 자랑할 만하다네.

다산이 강진에서 문산 이재의(文山 李載毅)와 화답한 차시가 전해지는데, 다음의 시가 다산의 작품이다.

雨後新茶如展旗 비 갠 뒤 새 차 잎 깃발인양 피어나니,  
茶筴茶碾漸修治 차 부엌 차 맷돌 살펴야 하겠구나.  
東方自古無茶稅 동방엔 예로부터 차 세금 없었거니,  
不怕前村犬吠時 앞마을 개 짖는 소리 두려워 마라.

봄비에 차나무의 잎 피어나는 것을 보는 기쁨을 노래했다. 머지않아 새 차의 그 향긋한 향미를 맛보게 될 것임에 도구(茶具)를 손질하며 준비하는 그 잔잔한 기쁨은 참으로 차 맛을 아는 이 만의 즐거움이리라. 그러나 문득 차를 거두어 갈 관리가 찾아올 걱정이 생긴다. 그러

나 우리나라엔 예로부터 차세가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걱정을 잊고자 하는 것이다.

다산은 일찍부터 차를 마신 것 같다. 21세 되던 임인년(1782) 어느 봄날 마을 사람으로부터 신차 한 포를 얻었다. 체천(楝泉)의 맑은 샘물을 길어 그 맛을 시험해 보리라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기도 했다. 「춘일체천잡시(春日楝泉雜詩)」라는 제목이다.

鴉谷新茶始展旗 아곡의 차 잎이 처음으로 피어날 제  
 一色纔得里仁胎 한 포를 마을 사람의 호의로 얻었노라  
 楝泉水品清何似 체천(楝泉)의 수품(水品) 얼마나 맑은지  
 閑就銀瓶小試之 한가히 은병으로 시험해 보리라.

금척산 북쪽에 백아곡(白鴉谷)이 있고, 그 곳에는 작설차가 난다고 했다. 체천은 서울의 창동에 있던 샘물이었는데, 그 좋은 우물물로 시험 삼아 차를 다리겠다는 기쁨이 엿보이는 시다. 다산에게 은병(銀瓶)은 어울리지 않는 다구(茶具)지만, 좋은 차를 얻었기에 그것을 은병에 달여 보겠다는 문학적인 표현일 것이다.

## 2. 茶山과 惠藏과 茶

다산은 대흥사와 매우 깊은 인연이 있던 사람이다. 그가 강진에서 18년간 유배생활을 하게 된 까닭에 맺어진 인연이다. 대흥사의 승 혜장(惠藏), 초의(草衣) 등과 맺었던 교유가 그것이고, 『만일암지(挽日庵誌)』를 편찬하고 『대둔사지(大屯寺誌)』의 편찬에도 깊이 관여했던 것 등이 또한 그것이다. 고적한 유배지에서 다산이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깊은 교분을 맺은 사람은 혜장선사(惠藏禪師, 1772~1811)였다.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다산이 강진으로 온 지 5년째 되던 1805년 가을 백련사(白蓮社)에서의 일이었다. 이때 다산은 44세, 혜장은 34세로 십년 후배였다. 혜장은 이해 봄 해남 대흥사에서 강진의 백련사로 옮겨와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었다. 비록 열 살 차이의 사제(師弟)간의 정분이었고, 유불(儒佛)의 만남이긴 했어도 서로의 마음을 연 교분이었기 때문이다. 혜장은 다산으로부터 주역을 배웠고, 다산은 혜장으로부터 차를 얻어 마셨다. 혜장은 승려이면서도 『주역(周易)』을 공부한 지 오래였다. 그가 다산을 만나고자 원했던 이유는 「주역」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이기도 했다. 이들의 첫 문답은 주로 역리(易理)를 따지는 데 있었다. 혜장은 『주역』을 공부한 지 이미 20년이었으므로, 역학(易學)에 대한 실력이 대단했고, 다산 또한 이때 역학에 전력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첫 대화는 자연스러울 수 있었으리라. 이때부터 혜장은 다산으로부터 역학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되고 다산은 사원을 중심으로 전해오던 다도를 혜장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차와 시가 오고 갔다. 다산의 시 중에서, '혜장이 나를 위해 차를 만들었다.'고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지역에 전해오는 전통 차 맛을 본 다산은 무척이나 차를 즐겼는데, 차는 그의 답답한 가슴을 진정시켜 주는 좋은 약이기도 했다. 막막한 유형지에서 만난 혜장, 그리고 그를 통해 맛본 차의 향기는 다산

으로 하여금 새롭게 정신을 가다듬고 학문에 몰두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해 겨울이 되자 다산은 사의제로부터 강진읍 뒤 우이산 우두봉(牛頭峰) 아래에 있는 한 작은 암자(지금의 高聲寺)인 보은산방(寶恩山房)으로 옮겼다. 다산이 보은산방으로 옮기게 된 데는 아마도 혜장의 청과 도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듬해 가을 다산이 학채(鶴采)의 집으로 옮겼다가, 다시 다산동(茶山洞)으로 옮겨가기까지 보은산방은 다산역(茶山易)의 산실이 되고, 또 그가 다도를 익히는 도량이 되었다. 이곳에서 다산은 혜장을 위하여 무려 13수나 되는 시를 남겼다. 다산이 한 사람을 위하여 쓴 시의 양으로는 가장 많은 경우다. 이것만으로도 다산이 혜장에게 쏟은 정이가 얼마나 두터운 것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다.

다산은 차 양식이 떨어지면 주저하지 않고 혜장에게 차를 빌었다. 다음의 「기증혜장상인걸명(寄贈惠藏上人乞茗)」이라는 시도 이 같은 경우에 씌어 진 것이다.

傳聞石廩底 들자니 석름골에는  
 由來產佳茗 옛 부터 좋은 차가 난다네.  
 時當晒麥天 보리이삭 팠 철이 오면  
 旗展亦槍挺 한 잎 두 잎 새 싹이 자란 다오.  
 窮居習長齋 궁하게 사는 사람 채식에 버릇되니  
 羶臊志已冷 노린내 비린내 나는 고기 먹을 뜻 없노라.  
 花猪與粥雞 돼지고기와 닭죽 같은  
 豪侈邈難竝 호사스런 음식 먹기  
 疴因痲若 현벽병의 고통이 있고  
 時中酒未醒 때때로 술을 마셔 깨지 않기 때문이랴오.  
 庶籍已公林 바라오니 스님의 숲에 있는 차  
 小充陸羽鼎 육우의 차 솥에 조금만 채워 주소서.  
 檀施苟去疾 베풀어주시면 내 병 물리치려니  
 奚殊津筏極 나룻배로 건너 줌과 어찌 다르리오.  
 焙晒須如法 법대로 불에 쪼여 말리어  
 浸漬色方滌 물에 넣으면 그 차 빛 맑기도 하리라.

다산은 혜장선사에게 자기의 빈 차 솥에 조금이라도 차를 채워주도록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그는 차를 구함이 호사스런 생활이나 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병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귀양살이 서러운 나그네 신체의 그가 어찌 고기를 먹어 배부를 틈이 있었고, 소화를 염려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가슴에 갑자기 통증이 오는 현벽병과 술 마셔 흐릿한 정신을 차로써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만은 아니고 당시 그의 현실이었을 것이다. 그의 「걸명소(乞茗疏)」에도 「내 몸에 병 있어 애오라지 차를 빈다오」 「병중에 크게 탐함에 노동의 일곱 잔도 말라 버렸소」 등의 표현이 보인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조차 꺼리는 적막한 유형지의 생활 중에서도 그는 부패한 탐관오리와 고통에 허덕이는 농민들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한 밤중 책상을 치고 일어나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고

답답한 현실과 가슴 속 울분을 진정시키고자 술을 마셔도 취할 줄 모른다고 토로할 정도로 마셨다. 답답한 가슴, 취한 정신을 차로써 풀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스님 당신께서 보시를 해준다면 내 현벽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데, 나룻배로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 주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으며, 중생의 구제를 염원하는 스님께서 어찌 이를 외면할 수 있단 말이오.」라고 간곡히 차 보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혜장의 제자 색성(隲性)이 다산에게 차를 보내준 적이 있다. 이에 다산은 한 수의 시로써 보답했다. 곧 다음의 「사색성기다(謝隲性寄茶)」다.

藏公衆弟子 혜장스님의 많은 제자 중에서도  
 頤也最稱奇 색성스님이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오.  
 已了華嚴教 이미 화엄학을 배웠고  
 兼治杜甫詩 겸하여 두보의 시까지 익혔다오.  
 草魁頗善焙 좋은 차 잘 법제하여  
 珍重慰孤羈 외로운 나그네 위로함이 진중하다오.

색성으로부터 차를 선물 받아 기뻐지만, 그러나 다산을 위하여 차를 만들었던 혜장선사는 그의 제자 색성이 다산에게 차를 주었음을 알고 주지 않았다. 이에 다산은 끝내 그 차를 나누어 줄 것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與可昔饒竹 여가(與可)는 옛적에 죽순을 먹었다지만  
 籜翁今饒茗 탁옹(籜翁)은 이제 차를 탐한다오.  
 況爾棲茶山 하물며 네가 다산에 삶에  
 漫山紫筍挺 온 산에 붉은 죽순 돌아난다오.  
 弟子意雖厚 제자의 뜻은 후한데  
 先生禮頗冷 선생의 예는 그렇게 쌀쌀 하오.  
 白斤且不辭 백 근이라도 사양하지 않겠거늘  
 兩苞施宜竝 두 포 정도 베풀어줌이 마땅하다오.  
 如酒只一壺 술이라면 어찌 한 병만으로  
 豈得長不醒 오래오래 깨지 않을 수 있으리오  
 已空彥沖瓷 이미 언충(彥沖)의 차 그릇이 비었고  
 辜負彌明鼎 미명(彌明)의 솥이 막혔다오.  
 四鄰多霍瘴 이웃에는 광체가 많으니  
 有乞將何極 차를 구한다면 어떻게 구하리오.  
 唯應碧澗月 푸른 시냇물에 달이 비쳤으니,  
 意吐雲中澗 마침내 운중(雲中)의 맑음을 토하리.

여가(與可)는 송나라 문동(文同)의 자(字), 탁옹(籜翁)은 다산의 또 하나의 호다. 혜장선사의 제자 색성의 뜻은 후한데 색성의 스승인 혜장 당신의 예는 자못 쌀쌀하다고 몰아 부치고

있다. 제자보다도 그 인심이 더 쌀쌀하다는 원망이다. 추사는 지기(知己), 초의스님에게 밀린 차 세금 보내주지 않으면 매를 내리겠다고 장난한 적이 있다. 다산은 그 제자격인 혜장에게 어찌 그렇게 예의가 없느냐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백 근이라도 준다면 사양하지 않을 터인데, 두 포 정도야 주는 것이 당연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한 병의 술로써야 오래오래 취할 수 없듯이, 한 포의 차로써야 어찌 만족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핑계를 대면서 사방에 광채 난 사람이 많아 차를 찾으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하겠는가고 조른다. 다산은 걸명소를 썼고, 이 글은 초의의 「동다송(東茶頌)」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것이었다. 「나그네는 최근에 차를 탐하지만 겸하여 약으로도 쓴다오」로 시작한 이 글은 「목마르게 회구하는 이 뜻 잊지 말라」고 끝맺고 있다. 그는 또한 이 글에서도 「고해를 건너는 나루로써 가장 귀한 것은 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육바라밀은 고해를 건너 저 피안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 나룻배, 그 육바라밀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남에게 베풀어주는 보시라고 당신네 불교에선 강조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 스님 당신께선 고해의 나룻배가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나에게 차 보시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다산이 울적하고 막막한 가슴을 열고 학문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차의 덕이 많았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다산과 혜장의 교분은, 혜장이 40세 젊은 나이로 입적하던 1811년까지 계속되었고, 다산은 다시 색성, 초의 등의 스님에게 차를 얻어 마셨으며, 다산의 두 아들 학연과 학유는 훗날 초의와 같은 인연을 맺었으니, 대를 잇는 인연이었다.

### 3. 茶山과 寶林茶

초의(草衣)선사는 다산보다 25년이나 나이가 적었다. 초의는 다산에게서 유서를 빌어 읽고 시를 배웠다. 또한 혜장선사와 마찬가지로 역학을 배우기도 했다. 초의선사의 자(字) ‘중부(中孚)’라는 것도 주역으로부터 유래한 것이었다. 다산은 초의의 스승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격의 없는 지기이기도 했다. 다산은 28세의 초의에게 작시(作詩)에 대해서 말했다.

시라는 것은 뜻을 말하는 것이다. 본디 뜻이 저속하면 억지로 청고한 말을 하여도 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디 뜻이 편협하고 비루하면 억지로 달통한 말을 하여도 사정에 절실하지 못하게 된다. 시를 배움에 있어 그 뜻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썩은 땅에서 맑은 샘물을 걸러 내려고 노력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인(天人)과 성명(性命)의 이치를 알고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나뉘름을 살피서 찌꺼기를 걸러 맑고 참됨이 발현하게 하면 된다.

초의 시가 찌꺼기를 걸러낸 맑고 깨끗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임신년에는 초의와 다산이 함께 백운동에서 하룻밤을 즐겼다. 이때 초의는 백운동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고, 다산은 백운동의 승사를 시로써 읊기도 하고 다산도(茶山圖)를 그리기도 했다. 초의가 이때 그린 백운도(白雲圖)와 다산이 그린 다산도(茶山圖)는 현재 강진 이쾌점(李愷點)씨가

소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의 교류에는 풍류가 있었던 것이다. 또 다산과 초의에게는 그들이 즐겨 마시는 차가 있었다. 다산은 이미 혜장으로부터 다도를 배웠던 것이고, 초의는 한국다도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다도에 조예가 깊던 인물이다. 다산이 처음 다도를 알게 된 것은 혜장으로부터겠지만 다도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은 아무래도 초의의 영향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산이 말하는 차는 생강차 등이 아니라 녹차였다. 그는 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茶字를 탕환고 처럼 마시는 따위로 인식하여 무릇 약물의 단조롭게 다리는 것은 다 이를 차라고 말하여 생강차, 굴피차 모과차 뽕차, 송지차 오과차라고 하여 관습적으로 항상 쓰는 말로 삼는데, 이는 잘못이다. 중국에서는 이런 법이 없는 것 같다. (아언각비 권1)

다산은 차의 재배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방 여러 고을에서 산출되는 차는 매우 좋다. 내가 본 바로는 해남강진영암장흥 등 모등 바닷가 고을은 차가 나지 않는 곳이 없다. 내 생각에는 차가 나는 모든 산은 지방관으로 하여금 재배하도록 하고, 백성들의 樵牧을 금지하여 그 무성해진 뒤 해마다 몇 근 차를 임행 시에 바쳐서 그 차를 다시 滿河省에 보내 좋은 말을 사다가 목장에 頒給하는 것도 또한 나라의 쓰임을 넉넉하게 하기에 족할 것이다. (경세유표 권2)

그리고 호남에는 황차, 만덕차, 보림차 등이 있었는데, 모두 다산과 관련이 있었다. 黃茶는 차당이 누런 약 발효차다. 실학자 조계삼(趙在삼, 1808~1866)은 松南雜識에서, 해남에는 예부터 황차가 있는데, 세상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오직 정약용이 알뿐이어서 丁茶라고 이름한다고 했다. 이규경의 다다변증설에 의하면, 다산 정약용이 적거(謫居) 때에 강진 만덕사의 차잎을 써서 말려 작은 덩이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만덕차라고 했다. 만덕사지에는 만덕차는 품질이 매우 좋지만, 해가 갈수록 따는 이가 많아서 승려가 지키기 어렵고 차나무도 차차 없어진다고 했다. 보림사 대밭의 차로 만든 보림차는 19세기 후반에 유명했다. 평소에 차를 즐겨 마셨던 이유원(1814-1888)은 임신년(1872, 고종 9) 上元에 四時香館에 있으면서 고경선사(古鏡禪師)와 보림차를 마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품질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그는 보림차의 법제와 그 품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진 寶林寺 대밭의 차는 冽水 丁若鏞이 체득하여 절의 승려에게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 품질은 普洱茶 못지않으며, 곡우 전에 채취한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긴다. 이는 雨前茶라고 해도 될 것이다. (임하필기 권32)

다산은 실제로 구증구포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곧 범석호가 병오년에 회포를 기술한 시 십 수를 차운하여 송옹에게 부치다(次韻范石湖丙午書懷十首簡寄淞翁)라는 시 중에

洩過茶經九蒸曝 설사하고 지내니 구증구포한 차를 다리고

厭煩雞畜—雄雌 번거로움 귀찮아 닳은 한 쌍만 기른다오.

이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시문으로 유명했던 송나라 범성대(范成大)의 호가 석호(石湖)다. 이 구절을 통해서 다산이 차의 구증구포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산이 보림사 승려들에게 구증구포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이유원의 이 기록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다산과 이유원의 생존 시기가 5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도 이유원의 이 설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보림차의 법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조사해야 하겠지만, 19세기 후반에 이 차가 유명했던 것은 사실이다. 범해는 茶歌에서 보림사 작설은 감영에 실어간다고 했다. 草衣가 그의 先師인 완호대사(玩虎大師)를 위하여 삼여탑(三如塔)을 건립한 다음 都尉 海居 洪顯周에게 銘과 詩를 부탁하고, 紫霞 申緯에게 서문을 부탁하면서 보림차를 선물하였다.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 1841-1920)은 학도와 工匠을 인솔하고 청나라의 天津으로 가서 그들을 器機局에 소속시키는 한편 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을 만나 조미수호조약의 막후교섭을 한 바 있다. 그는 1882년 1월 13일에 천진해관도군기소남국(天津海關道軍機所南局)을 방문, 그곳의 관원들에게 보림차 55원씩을 증정하고, 이튿날에는 동국의 관원들에게도 55원씩을 증정하였다.

#### 4. 茶信契

다산이 정들었던 강진을 떠난 것은 그의 유배생활 18년 만인 1818년으로 그의 나이 58세 되던 해였다. 다산은 강진을 떠나게 되자 다신계(茶信契)를 만들었다. 이것은 제자들과의 두터운 정의를 끊지 않고자 함이었고, 이곳을 떠나서도 차를 구하고자 함이었다. 이 다신계는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 다산을 모시고서 받기한 것이다. 「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다.

사람이 귀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무리가 모여서 서로 즐거워하고 헤어져서 서로 잊는다면 이것은 금수의 길이라 할 것이다. 우리들 수십 인이, 여기에 무진년 다산이 강진읍에서 굴동(橘洞)으로 옮겨온 순조 8년 봄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모여 살고 글을 쌓아 형제처럼 지내다가 지금 함장(函丈)이 북으로 돌아가시니 우리들도 헤어져서 만약 이내 막연히 서로 잊고 이른바 강신지도(講信之道)를 생각지 않는다면 역시 경박한 일이 되지 않으리오. 지난봄에 우리들은 미리 이것을 우려하여 돈을 모아 계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돈 한 냥씩 내었는데, 2년 동안에 이자가 늘어 지금 그 돈이 35냥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헤어진 뒤에는 돈의 출납이 마음대로 되기 어려울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던 중 함장이 가지고 계시던 보암서촌(寶巖西村)의 박전수구(薄田數區)를, 떠날 때에 팔고자 했지만 잘 팔리지도 않는지라, 여기에 우리들이 35냥의 돈을 행장에 넣어 드렸더니 함장은 서촌수구(西村數區)의 논을 돌려 계물(契物)로 만들고, 다신계(茶信契)라고 이름 지어 일후(日後)의 강신(講信)의 터전으로 삼기로 하여 그 조례(條例)의 전토결자(田土結資)의 수량(數量) 같은 것을 아래에 기록하는 바이다.

이상이 다신계를 받기하게 된 취지다. 이 글 다음에 18명의 문하생 계원의 이름을 좌목(座目)이라 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다신계에 속한 전답을 기록하고, 다음으로 약사(約事)를 기록하였다. 약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서로 약속하고 있다.

- ① 해마다 청명(淸明) 한식(寒食)날 계원은 다산에 모여서 계사(契事)를 닦고 운(韻)을 내어 시를 지어 연명작서(聯名作書)하여 유산(西山)에게 보낼 것, 이 날의 어가(魚價) 일량(一兩)은 계에서 내며 양식 1되(斗)는 각자 가져올 것.
- ② 곡우(穀雨)에 연한 찻잎을 따서 이것을 불에 말려 1근(斤)을 만들고, 입하(立夏)에 만다(晩茶)를 따서 작병(作餅) 2근(斤)하여 이 두 가지 차와 함께 시찰(詩札)을 부칠 것.
- ③ 국화(菊花) 때에 계원이 다산에 모여 계사(契事)를 닦고 시회(詩會)를 열 것. 이 시를 서 산(西山)에게 보낼 것과 기타의 절차와 준비는 청명 때와 같이 한다.
- ④ 상강(霜降)에 신면포(新綿布) 한 필(疋)을 사되 그 세(細)는 그 해의 추수의 많고 적음이며 백로(白露)에 비자(櫃子) 5되를 따서 면포(綿布)와 같이 유산(西山)에게 보낼 것.
- ⑤ 차의 역(役)은 각인(各人)이 수를 나누어 각자가 마련할 것이며, 스스로 마련을 못하면 전오 분(錢五分)을 신동(信東淳菴의 小諱)에 주어서 굴동의 아이를 시켜 차를 따서 수를 채울 것.
- ⑥ 암개초가(菴蓋草價) 일량(一兩)은 입동(立冬)날 계에서 거두어 굴동의 제자로 하여금 이는 일을 감독케 하여 동지(冬至) 전에 새로 덮게 할 것이며, 동지를 넘긴다면 이듬해 봄의 다역(茶役)은 이 6명이 모두 담당할 것이며, 다른 계원은 돕지 말 것.
- ⑦ 모든 역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출한 후 만약 남은 돈이 있으면 착실한 계원에게 돈을 빌려 주되 한 사람에 2량을 넘겨서 주지 말 것. 그리고 15냥 혹은 20냥이 차면 논을 사서 계에 붙이되, 그 식리의 돈은 20냥을 넘지 말 것.

이상이 다신계원들이 서로 약속한 약사의 내용이다. 이 약사에서 특히 우리들의 흥미를 끄는 것은 곡우에 연차(嫩茶), 입하에 만차(晩茶)를 따도록 한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다산 자신이 체득(體得)한 바 차 따는 적절한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모든 계원이 일 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인 봄과 가을에 이곳 다산에 모여 계사를 닦고 시회를 갖도록 한 것도 꽤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다신계까지 조직해 두고 강진을 떠난 다산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다산등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5년만인 순조 23년(1823)에 다산에 있는 기승(旗升)과 금계(琴季) 두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었다.

다산(茶山)의 제생(諸生)이 열상(冽上)으로 나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내가 물었다.

“금년에 동암(東庵)의 지붕을 이었느냐?”

문하생이 대답하기를

“이었습니다.”

“홍도(紅桃)는 말라죽지 않았을까?”

“더 번창하고 곱게 되었습니다.”

“우물 쌓은 돌들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못의 두 마리 잉어는 더 컸나?”

“2척이 되었습니다.”

“동사(東寺, 즉 백련사)로 넘어가는 길가에 심은 선춘화(先春花, 동백꽃)가 다 같이 자랐는가?”

“그렇습니다.”

“올 때에 조다(早茶)를 따서 말렸는가?”

“미처 못 했습니다.”

“다사(茶社, 즉 다신계)의 전곡(錢穀)이 견히지 않은 것은 없는가?”

“네 없습니다.”

죽은 이가 되살아오더라도 능히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는 고인(古人)의 말이 있다. 내가 다시 다산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 역시 죽은 사람이나 같은데, 혹시나 또 내가 다산동에 가더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부끄러운 빛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글은 실제로 제생(諸生)이 열상(測上)에 간 것이 아니라 다산이 혼자 이렇게 쓴 것으로 다산의 윤씨 댁에 친필로 전해진 것이다. 동암(東庵)의 지붕은 잘 이었는지? 뜰에 심은 홍도(紅桃)는 죽지나 않았는지? 우물 쌓은 돌은 무너지지나 않았는지? 못의 두 마리 잉어는 얼마나 컸는지? 백련사로 가는 길가에 심었던 동백꽃은 잘 자라고 있는지? 차는 철을 놓치지 않고 잘 따는지? 이 모든 것들이 걱정이었고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꽃 한 포기 잉어 한 마리까지 걱정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차인으로서의 다산의 모습이다.

## V 초의(1786~1866)의 차와 선과 시

조선후기의 불교는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탈락되어 크게 낙후되어 있었고, 몇 분의 고승을 제외한 일반 승려들은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온갖 잡역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칠천(七賤)으로 전락했다. 다산의 『목민심서』에서 그 한 예를 들어보겠다. 관원 두세 명이 휴가에 노래하고 춤추는 자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놀다가 취하여 옛 사람의 시를 외웠다. “죽원(竹院)을 지나다가 중을 만나 얘기하니, 단 한 번 부생(浮生)의 한가함을 얻었네.” 스님이 듣고 웃으며 말했다. “높으신 관원께서 만나질 한가함을 얻는데, 늙은 중은 3일 동안 바빠야 했습니다.” 곧 하루는 장막을 쳐야 하고, 하루는 노는 심부름을 해야 하고, 하루는 소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또 다산은 백련사 스님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시로 쓴 적이 있다. 관가의 온갖 횡포와 성화를 피하기 위해 그 화근이 되는 어린 소나무를 뽑아버리고 산문을 닫아버리겠다는 승려의 한을 읊은 시입니다. 서산대사의 의발(衣鉢)이 봉안된 대흥사는, 조선 후기 그 어렵던 상황 속에서도 대도량으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13대 중

사(宗師), 13대 강사(講師)가 배출되었다는 자긍심은 지금도 높다란 두 석주(石柱)로 서있다. 배불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유독 대홍사에서는 빛나는 학풍과 선풍을 꽃피웠던 것이다. 초의선사는 대홍사가 자랑하는 13대 종사 중의 한 분이다.

19세기에 이르러 대홍사에서는 음다(飲茶)의 풍이 크게 일어났다. 사실 대홍사는 우리나라 차문화의 요람이었다. 대홍사는 차를 만들고 또 마시는 스님이 많았다. 혜장스님과 그 제자 수룡과 철경은 다산과 인연을 맺었다. 대홍사의 자훈, 향훈, 철선 등은 추사에게 차를 보내곤 했다. 범해도 유명한 다승(茶僧)이었다. 범해스님은 중부, 이봉, 무위, 예남, 남파, 영호 등의 음다풍에 관해 그의 다가(茶歌)에서 언급했다. 이들 대홍사의 여러 다승 중에서도 초의스님은 가장 유명한 차인이었음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스님은 16세에 출가하여 선과 교를 공부하는 외에 다산으로부터 유학과 시를 배웠다. 젊은 시절 그는 금강산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산을 여행하기도 하고, 중앙의 지식인들과 친교를 맺기도 했지만, 그는 주로 두륜산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는 일찍이 현인군자를 두루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어물전의 잔고기 떼임을 안 뒤로부터 81세로 입적할 때까지 40여년을 일지암에서 조용히 수행으로 보냈다.

그의 명성은 이미 당대에 높았다. 침체된 당시의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禪風)을 일으킨 선사(禪師)로서, 근근이 그 명맥만 이어오던 한국의 차도(茶道)를 중흥시킨 차인(茶人)으로서, 깊고도 담담하며 맑고도 깨끗한 시를 남긴 시인으로서, 그는 존경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명성은 대궐에까지 퍼져 있었다. 1849년 정월 헌종(憲宗)은 소치(小癡)에게 물었다. “호남에 초의승이 있다는데, 그 수행이 어떠한가?”라고. 이에 소치는 “세상에서 고승이라 일컬습니다. 내외전에 정통하여 사대부와 증유(從遊)가 많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그가 교류했던 인사로는 김정희(金正喜)와 김명희(金命喜) 두 형제를 비롯하여 홍석주(洪奭周), 홍현주(洪顯周) 등 당대의 유명한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그와 함께 시를 읊고 차를 마시면서 도를 논하던 사람들이었다. 특히 정의에 넘치는 추사(秋史)와의 친교는 너무나 유명했다.

추사와 초의의 교유에는 차의 향기가 스며 있다. 추사는 거의 해마다 봄이면 초의로부터 차 선물을 받았다. “특별히 보내준 다품은 심폐를 개운하게 해줍니다. 차는 과연 훌륭하여 능히 차삼매를 통달한 것 같습니다. 보내준 차는 병든 위를 쾌히 낮게 해주니 느낌 간절하여 뼈에 사무치는데, 하물며 이와 같이 침돈한 속에서는 더욱 더합니다.” 이처럼 초의가 보내준 차의 고마움과 그 솜씨의 뛰어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차 법제에 대해서 “널 볶는 법이 살짝 도를 넘어 정기가 녹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드니, 만약 다시 만들 경우에는 곧 화후(火候)를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자신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추사의 차 욕심은 많았다. “전일에 보내준 차는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곡우 전의 잎은 얼마나 가려 놓았습니까? 언제 보내주어 이 굵주림을 진정시켜 주시겠습니까? 날마다 기다려집니다.” “거둔 뒤에 계속 부쳐주시길 바라는데 이것은 싫증 없는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스님을 보고 싶지도 않고 또한 스님의 편지도 보고 싶지 않으나, 다만 차의 인연만은 차마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쉽사리 부수어버리지도 못하여 또 차를 재촉하니, 편지는 보낼 필요도

없고, 다만 2년이나 밀린 빛을 함께 챙겨 보내되, 다시 지체하거나 빛나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조의 할(喙)과 덕산의 봉(棒)을 받을 것이니, 이 한 할과 이 한 봉은 아무리 백천겁이라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새 차는 어찌하여 들샘 솔바람 사이에서 혼자만 마시며 도무지 먼 사람 생각은 아니하는 것입니까? 삼십대의 봉을 아프게 맞아야만 하겠습니까?” 이러한 표현으로 두 사람이 얼마나 격의 없이 교류하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추사가 초의의 차를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차포를 받았는데, 차의 향기에 감촉되어 문득 눈이 열림을 깨닫겠으니 편지의 있고 없음은 본래 계산하지도 않았습시다. 이 몸은 차를 마시지 못해서 병든 것인데 지금 차를 보니 나아버렸습니다.” “이곳의 물맛은 바로 관악산 한 맥에서 흘러나온 것인데, 두륜산에 비하면 갑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공덕의 3·4는 있겠기에 보내온 차를 시험해 보니 샘 맛도 차 맛도 좋아서 바로 한 조각 희환의 인연이었습니다.”

추사는 좋은 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글씨도 아끼지 않았고, 체면도 돌보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초의 이외에도 대승사의 호의(縞衣), 자흔 만휴(自欣 萬休), 철선 혜즙(鐵船 惠楫), 향훈(向薰) 등과도 인연이 있었다. 이들 승려들로부터 차를 구하고는 했다. “자흔과 향훈까지도 각각 보내준 것이 있어서 그 뜻이 진실로 후하니 나를 위해 대신 치사를 해주십시오.” “향훈과도 차에 대한 약속을 정녕히 한 바 있는데 왜 일창일기도 보내주지 않는지 한스러운 일입니다. 이 뜻을 그에게 전달하고 그의 차바구니를 뒤져내어 봄에 오는 인편에 보내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흔과 향훈 등 여러 스님들에게도 일일이 색출하여 빠른 편에 부치거나 혹은 일부러 한 사람을 보내와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향훈 스님이 따로 박생(朴生)에게 준 엽차는 향기로운 맛이 극히 아름다우니 행여 나를 위해 다시 한 포를 청함이 어떠합니까? 내 병이 웬만하면 특별히 즐서로서 보답할 것임을 전하여 곧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사는 초의에게 염주, 향, 부채, 책력 등을 보냈고, 또한 많은 글씨를 보냈다. 편지에는 염주에 대해서, ‘염주를 보내는데 원래는 마흔 두 알로써 42장의 주에 응한 것이었으나 들은 깨어져 없어졌으니 한스럽지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아마도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을 뜻하는 42알의 특이한 염주를 만들고자 했던 것 같다. 추사의 편지에는 글씨에 관한 언급이 자주 보인다. “약간의 즐서를 부쳐 보내니 거두어들이기 바랍니다.”라거나, 또는 “즐서를 걸어주었으면 합니다.”라는 등의 구절이 보인다. 『반야심경』을 비롯한 『열반경』 등을 초해서 보냈고, 운백복(運百福), 일로향실(一爐香室), 명선(茗禪) 등의 뛰어난 작품을 보내주기도 했다. 초의는 해마다 차를 보냈고, 종이를 보낸 적도 있다. 추사는 초의에게 『전등록(傳燈錄)』을 구해서 보내주기를 부탁한 바 있다. 그는 『법원주립』 및 『종경록』을 구해서 읽을 만큼 불교에 심취했고, 또한 해박했던 것이다.

초의선사는 1830년에 일지암을 다시 짓고 시를 썼다. 이 시에서 “우물 파서 허공의 달 밝게 담고, 대통 이어 멀리 백운의 샘물 끝었다. …… 눈을 가린 꽃가지를 잘라 내니, 좋은 산 석양 속에 여전히 당당하구나.”라고 노래했다. 또한 소치는 초의선사의 일지암 생활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초의선사가 거처하는 곳은 두륜산(頭輪山)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울창하고 대나무가 무성한 곳에 두어간 초가를 엮어 그 속에서 살았지요. 수양버들은 처마를 스치고 작은 꽃들은 뜰에 가득하여 함께 어울리면서, 뜰 북판에 파 둔 상하 두 연못 속에 비치어 아롱졌습니다. 추녀 밑에는 크고 작은 다(茶) 절구를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초의 선사의 자작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못을 파니 허공중의 달이 환하게 담그어 지고, 뉘싯대 드리우니 까마득히 구름 샘에 통하도다.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눈을 가리는 꽃가지를 꺾으니, 석양 하늘에 아름다운 산이 저리도 많았던가.

이와 같은 시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선사의 그 청고(淸高)하고 담아(淡雅)한 경지는 세속인들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양 구름이 오락가락하는 새벽이나 달 뜬 저녁이면 선사는 고요에 잠긴 채 시를 읊으면서 흥얼거렸습니다. 향불을 피워 향기가 은은히 퍼질 때에 차를 반쯤 마시다 문득 일어나, 뜰을 거닐면서 스스로 취흥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정적에 잠긴 작은 난간에 기대어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새들과 상대하고, 깊숙한 오솔길을 따라 손님이 찾아올까 두려워 슬며시 숨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초암(草庵)에 있는 선사의 서가에는 서책들이 가득했었는데, 그 모두가 다 연화(蓮花)와 패엽(貝葉)이었습니다. 상자 속에 가득 찬 구슬 같은 두루마리는 법서(法書)와 명화(名畵)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초암에서 바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배우며 시를 읊고 경(經)을 읽으니, 참으로 적당한 곳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더구나 매일매일 초의선사와의 대화는 모두 물욕 밖의 고상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평범한 세속의 사람이지만, 어찌 선사의 광채를 받아 그 빛에 물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빛을 받고서도 어찌 세속의 티끌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초의의 시는 당시의 문인들 사이에 유명했다. 군더더기를 다 떨쳐버린 그의 시는 때 묻지 않은 맑은 것으로 이름났고, 마치 쟁반 위에 구슬을 구리는 것과도 같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달과 구름과 바람을 진정으로 시인, 그의 시에는 소나무 위에 걸린 달과 소나무 사이를 찾아 드는 달, 강변에 비치는 달과 연못 속에 잠긴 달, 그리고 눈 덮인 산 속에 비치는 달이 얼굴을 내민다. 그는 또한 무척이나 연못을 아꼈다. 연못과 마름과 연못가에 자라는 갖가지 풀들, 그리고 연잎을 타고 구르는 그 영롱한 이슬방울에도 그의 비단결 같은 마음을 보내곤 했던 것이다. 못 속에 비치는 산그늘하며, 구름하며, 달이 모두 그의 벗이었다. 그의 귀는 산새의 지저귀와 저녁 종소리와 풍경 소리와 소나무를 스쳐서 부는 바람 소리, 대나무 잎에 내리는 이슬비 소리를 향해 열려 있었다. “안개와 이슬과 구름과 노을도 옷을 삼는다.”라고 할 정도로 자연과 더불어 있었다. 아니 그것은, 초의 스스로 말했듯이, 삼라만상이 더불어 하나가 되는 삼매의 경지, 도인의 경지였다.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숲 속의 돌이 머리를 끄덕이며 듣는 경지였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언제 바람 잘 날 있으며, 욕망으로 끓주린 인생의 배 다 찰 날 있던가? 욕락은 누려보아도 갈증은 심해질 뿐이다. 삶의 갈증으로 목마를 때 한 잔 차는 진정 고마우니, 차는 찌들고 막힌 가슴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이기 때문이다. 삶의 갈증은 욕심에서 비

롯된다. 욕망을 다 채워서 행복을 기약할 수는 없다. 한 잔 차로 갈증을 해소함이란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아는 행복 바로 그것이다. 초의스님은 일지암에서 청산과 백운과, 그리고 새소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행복했던 분인 것 같다. 차의 가장 귀한 성품은 사되지 않은 것이고 맑고 깨끗한 것이다. 초의는 “예부터 성현이 다 함께 차를 사랑했음은, 차는 군자(君子)와도 같아서 그 성품이 무사(無邪)한 때문”이라고 했다. 한 잔 차로 맑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혼탁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혼탁함을 없애기에 맑다고 하고, 뜨거운 번뇌를 식혀주시기에 서늘하다고 한다.” 이는 청량(淸涼)에 대한 원효(元曉)의 해석이다. 현실의 삶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번뇌의 불길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청량제인 차는 향기롭고 맑다. 초의선사는 차사에서 읊었다. “거칠고 더러움 사라지고, 정기 스며드니, 대도 이롭이 어찌 멀기만 하랴.” “번뇌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는 절로 이루어질 것이다(煩惱不生道自成).” 떡구름 걷히면 푸른 하늘 얼굴을 내밀 듯, 번뇌의 바람 잠들면 차의 향기는 더욱 향기로운 것이다.